



장려상 • 공직부문



어머니의 작은 골목



어머니의 작은 골목



우리 집은 도로가에 위치한 상가형 5층 주택입니다. 이곳은 많은 서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곳인지라, 이웃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다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세상 둘도 없는 사이가 되어 어울려 살아가는 평범한 동네입니다.

특히 우리 집 바로 뒷골목은 언제나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시시콜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꽃피우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점심 때가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먹거리 풍성한 잔치 집 풍경으로 변하기도 하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골목의 대장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슬픈 일, 기쁜 일을 함께 나누며 그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 동네에서 인기가 참 많으십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각에 일어나셔서 요구르트 한 병을 꺼내어 들고 골목 초



입에서 꼬트머리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질을 하셨습니다. 함께 아침을 여는, 친구 같은 청소부 아저씨를 만나서 손에 꼭 쥐고 있던 요구르트를 건네주시고는 사이 좋게 부지런히 길바닥을 쓸어내면 우리 집 뒷골목은 마치 고운 비단을 깔아 놓은 듯 모두를 기분 좋게 해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모여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즐겁고 깨끗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주셨기에 어머니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 길 건너에는 전봇대 하나가 서 있습니다. 동네가 생길 때부터 있었으니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환갑도 넘었겠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전봇대 주변은 누군가가 몰래 가져다 버린 쓰레기들로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들과 심지어 음식물이 담긴 봉투까지 내팽겨 쳐져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패된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 없는 전봇대를 피해 멀리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정말 비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골목에 모여든 사람들도 건너편에 쌓인 쓰레기 봉치들을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도대체 누가 저런 몰지각한 짓을 하노?”

“쓰레기봉투 값 아낀다고 저렇게 양심을 판다 아이가!”

라며 흥분하여 성토를 하고 있었지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골목을 청소하고 나서 비뿔어진 양심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들로 가득한 전봇대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류, 종이박스류, 병류, 일반쓰레기, 음식물을 일일이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청소부 아저씨가,

“아이고 할매요, 뭐 한다고 그러십니까? 할매가 버린 것도 아닌 데…….”

하며 어머니를 말리셨지만, 청소부 아저씨를 도와 쓰레기 정리를 마무리하신 그 날 이후, 어머니께서는 버려진 양심을 정리하셔야 하는 한 가지 일이 더 생기신 겁니다.

“아들~ 오늘 저녁에 일찍 오나?”



“뭘 일 있습니까?”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꼭 얼굴을 보며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는 마치 큰 비밀을 가진 사람의 표정을 하시고는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전봇대 옆 쓰레기 정리를 하다가 돈을 봤다 아이가”

“무슨 돈요? 얼마요?”

어머니는 때 묻은 편지봉투에서 5만 원권 지폐 10장을 꺼내셨습니다. 누군가 쓰레기가 버려진 전봇대 옆을 지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이거 우짜노?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도 누가 흘리고 간 건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타겠노.”

마치 당신이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안절부절 하시는 어머니께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어무이, 어무이가 평소 남들이 하지 않는 굵은일을 도맡아서 하시니까 이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어무이 쓰이쇼. 누가 알

기나 하겠습니까? 허허.”

순간 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자리를 바로 하시고는,

“내가 이런 것을 바라고 그동안 그 일을 했던 말이야? 그리고 너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노? 공직자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쉽게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겠노? 그리고 그 돈이 내한테 좋은 것이면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피같이 소중한 것인데, 모른 척하고 가지라고 한다면 말이 되느냐?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마라!”

하셨습니다.

매섭게 질책하시는 모습에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무이, 제가 잘못 했습니다, 지구대에 가서 신고 하십시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전봇대에서 습득한 50만원을 들고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하였고, 그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한순간 잘못 생각한 것이 죄송스러워 시장에서 맛있는 것을 사드리겠다고 하니 어머니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나는 우리 아들하고 먹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최고로 맛있다.”



라고 하시며 저를 동네 맛집으로 소문난 3천 5백 원짜리 칼국수 집으로 이끄셨습니다.

칼국수를 드시는 동안에도 돈을 잃어버린 사람 걱정에 여념이 없으신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읽지 못한 죄송스러움과 남의 소중한 것을 가볍게 생각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늦은 밤 부모님이 계시는 위층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기 천사처럼 곤히 잠드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깨끗한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못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자책하면서 정직함을 몸소 실천하신 어머니의 고운 두 손을 살포시 잡아보았습니다.

며칠 후 지구대에서 돈 주인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은 돈 주인은, 정말 감사하다며 잃어버렸던 돈 5만 원권 10장 중 한 장을 사례금으로 건넸지만 어머니께서는 완강히 거절하며,

“젊은 아줌마, 돈을 찾아서 참 잘됐다. 마음고생 많이 했제. 아줌마가 좋아하는 걸 보니 내가 더 기분이 좋다.”

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젊은 여자 분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이,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소중한 쓰일 돈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공직부문

그 사건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동네에 소문이 났고, 골목에 모여든 사람들은 너도나도 어머니의 선행을 칭찬했지만 어머니는 그냥 웃으시며,

“내 것이 소중하면 남 것은 더 소중한 법이야.”

라며 당신의 땀짓돈을 털어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개씩을 돌리셨답니다.

우리의 골목을 지켜주신 골목대장님은 이제 더 만나 볼 수 없습니다. 올해 2월 말경 어머니는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 골목에서 예전의 생기를 찾아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어머니와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목 입구 끝자락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골목길은 여전히 누군가의 손에 의해 깔끔히 치워져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나는 너네들이 기분 좋아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아서 골목청소



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쁘고 웃는 것이 더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나한테 고마워 할 필요 없다.”

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작은 선행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실천을 보아 온 동네 사람들은 비록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그 작고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돌아가며 골목을 청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어머니의 정성과 마음이 그대로 잘 전해져 어머니의 골목은 언제나 변함없이 깨끗한 골목으로 남아 있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전봇대도 묵은 때를 벗은 듯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평소 청림이란 참으로 거창하고 고귀하여 쉬이 접근하기 힘든 실천 인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전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모습 속에서, 청림이란 작은 골목에서도, 쓰레기더미에서도 피어나는, 누구에게나 작은 감동으로 다가와 일상의 향기를 보태어 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의 작은 골목에 서서 어머니의 청렴한 향기를 맡으며 청림의 실천을 다짐해봅니다. ♡



Thank you



장려상 • 공직부문



진정한 보배



진정한 보배



하루는 송(宋)나라 농부가 밭갈이를 하다가 옥덩이를 줍게 되어, 이를 재상 자한(子罕)에게 바쳤습니다. 자한이 받지 않자, 농부는 “상공의 치세에 감명 받아 진상하는 보옥이옵니다. 어찌하여 내치십니까.”라고 말하며 거듭 받아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자한은 이에 “그대는 옥을 보배로 삼고 나는 받지 않음을 보배로 삼으니, 만일 내가 그것을 받는다면 오늘 모두의 보배를 잃는 셈이네.”라 답하였습니다.

자한사옥(子罕辭玉).

자한이 옥을 마다하였다는 이야기는 일찍이 다산(茶山)의 목민심서에 소개될 정도로 후세의 귀감이 되어왔습니다. 관료의 청렴함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이 일화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현 시국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한의 경우처럼, 우리들도 이따금씩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귀중한 선물을 제의받습니다. 목전에 옥을 두고 ‘받지 않음을 보배로 삼는’ 것은 적지 않은 용기를 필요로 합



니다. 지난 가을, 법무관으로서 제가 마주한 경험 또한 그러한 결의를 시험받은 경우였습니다.

법률 사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직역인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제가 배정받은 첫 임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였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대리해주는 기관이 바로 이 곳입니다.

“계시요?” 마른 하늘에 가을비가 내리던 10월의 어느 날, 왜소한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공단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희끗한 머리칼에 갈색 가디건을 입은 품이 낙엽처럼 세월에 바랜 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 사이로 여전히 고우셨지만, 굳게 다문 입술 사이에는 호소할 곳 없는 억울함이 배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내 오늘 마음 단디 먹고 왔습니데이.” 대화는 무거운 언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옆 공장에 불이 나서 우리 집까지 몽땅 타버렸는데, 공장 보험사에서 보상을 못 해준다고 안 합니까. 홀몸 늙은이라고 업신여기는 게 분명하니 어데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저는 할머니께 차를 덥혀드렸습니다. 잔을 받아든 어르신은 비에 젖은 손을 녹이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연인즉슨 이주일 전에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할머니의 집 베란다에 옮겨 붙었는데, 마침 집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베란다는 물론 거실의 상당부분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 | | | | |
|----|------|-----|------------|----|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입선 |
|----|------|-----|------------|----|

\ 공직부문

었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의 배상은 있을 줄 알았지만, 공장 측 보험사에서
는 내부 규정을 들어 300,000원 이상의 배상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
다. 돌봐주는 가족도 없이 근근이 살아가는 할머니는 밤마다 앓았다고 했
습니다.

“먼저 떠난 자식 놈이 만들어 주고 간 장롱이 마루에 있었어요. 그 머
스마 옷가지며 사진을 거기 다 모아 놨는데…….”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잠깐의 화재로, 할머니는 집은 물론 방안에 담긴
추억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의 그을린 기억에 이르러 사무실에는 정적
만이 맴돌았습니다.

이 분을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법무관 임관 이후 6개월간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의 제한을 받고 있었기에, 직
접 대리를 제외한 모든 법률적 절차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할머니, 현장 사진 좀 가져다 주이소. 우리 한 번 해 봅시데이!”

“변호사님 참말인가예?”

“하모, 참말이지예!”



경상 방언을 따라 호언하니 어르신은 눈주름이 웃음기로 변했습니다. 웃음 속에는 할머니의 고향내음과 아들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재 사진을 받아 든 날, 용인 지소에는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장 안에 집을 잃은 한 노인의 설움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설움은 보험사의 비정함과 맞물려 참혹하였습니다. 법률상 제한으로 인해 소장 작성자가 직접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현실, 결국 법정 앞에 홀로 서야 할 할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없어도 그 마음이 재판부에 와 닿아야 했으므로, 글은 쉽사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산통을 겪어 소장이 다듬어진 다음날 아침, 저는 어르신을 배웅하며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언제든지 문의 하이소, 아셨지요?”

어르신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높아만 보였던 법원의 담은 이렇게 할머니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르신은 2주에 한 번 꼴로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있어서 외롭지 않은 싸움이라며 할머니의 입가에는 연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내 조정(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중국적인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모양이었습니다. 고령의 노인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중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한 저는, 즉시 피고 측 보험사에게 연락하여 원고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아래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가 아님을 인식하자 피고 역시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조울 의사가 있다’며 한 발 물러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맞물려, 최종적으로 할머니는 3,000,000원의 위자료와 함께 건물의 보수금까지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초에 피고로부터 제시된 300,000원의 10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찌…….”

어르신은 감읍하셨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따라와 주실랍니까?”

긴히 밖에서 나눌 대화가 있다는 말씀에 어리둥절한 채, 어르신에게 손을 잡힌 저는 공단 건물 외부로 나왔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어르신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운을 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같은 사람



들한테 받지도 않고 무일푼으로 도와주시는 게 고마워서 그래예…….”

할머님은 이내 주머니에 있던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뭘데예?”

“작은 성의니까 다른 말 말고 그냥 받아요. 그리 안카쁜 내가 도움 받고 염치를 모르는 이가 된다 아닙니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 원짜리 지폐 예닐곱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들은 할머니의 비좁은 손지갑 안에서 어제까지 쪽잠 자던 모양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거실 안에서, 한 장 한 장 지폐를 꺼내는 어르신 의 뒷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몽클한 마음을 다잡고 저는 웃어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디 손님이라도 맞으면 요긴하게 쓰려고 뭉쳐놓은 돈 같은데……. 꼬깃꼬깃한 것이?”

“선생님 꼭 한 번 우리 집 오시오. 은인 대접을 그걸로 안 한다면 달리 어찌 쓰겠능교?”

어르신의 결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듯 했습니다.

“맞제? 할머니 보배 아잉교, 이 돈이. 다시 잘 접어 넣어 두이소. 요즘 이런 쪽에 나라 법이 지엄한 거, 알고 있지예?”

할머니는 안타까움에 발을 구르셨습니다.

“구해준 분께 마음의 선물을 막는 나라 법이 사상 천지에 어디 있는 교?”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아드리며 나지막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럼 다른 마음의 선물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다른...마음의 선물예?”

두 시간 후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상 한 편에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담은 할머니의 편지가 놓였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아 뻘뻘한 서체로 서툴게 적어 내려간 손편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도움으로 세상이 아직 따뜻한 것을 알고 갑니다…….’



순간의 기지로서 저는 다른 내용물이 담긴 선물을 받았지만, 여운은 훨씬 크게 남았습니다. 그 날 저는 작은 이익을 사양하고, 할머니의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법률 구호의 인연으로 저를 스쳐간 많은 이들의 편지가 이 안에 숨 쉬고 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의 지극한 필체부터 신혼부부의 아기자기한 손글씨까지 외형은 다양하지만 그 모두가 단 하나, 대가를 받지 않는 ‘내리도움’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내리도움은 금전적인 보답을 바라지 않으므로, 이들의 편지는 돕는 이의 청렴함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인더에 자신의 향취를 남긴 의뢰인들은 공단의 도움에 보답하고자, 그들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이 마음은 때로는 시원한 음료수나 따뜻한 캔 커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선물은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거절하는 것이 공식 사회의 흐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직무관련성이라는 가변적 기준을 토대로 획일적인 재제를 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마음 그 자체를 보배로 여기게 된 것은 청탁금지법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청렴한 태도로 의뢰인을 대하자 언제부터인가 저에 대한 선물은 편지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로 받은 다과는 금방 없어지지만, 편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내는 세월이 종이색이 바래고 잉크가 얼어져도, 안에

담긴 마음만은 기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끝에서, 저는 때 묻지 않은 젊은 날의 열정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할머니를 뵈던 첫 날처럼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의 비는 한 여름의 녹음을 머금어 더욱 짙고, 생동합니다. 지금쯤 그슬린 안채도 수리 되었을 것이고, 여름비를 맞은 할머니의 마음에도 새순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어르신이 소중히 모았던 돈을 고사했던 추억에 잠겨, 농부의 옥덩이를 사양한 자한을 떠올려봅니다. 백성이 주는 사랑을 진정한 보배로 삼고 이에 청렴으로 보답한 공직자의 몸가짐. 그 마음은 2,500년의 세월을 지나, 어느새 저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



장려상 • 공직부문



새벽 2시에
울린 전화



새벽 2시에 울린 전화



“따르릉, 따르릉…….”

오늘도 어김없이 집 전화기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얼마 전부터 새벽 2시만 되면 오는 전화였다. 늦은 밤에 울린 벨소리에 가족들이 잠을 깬고, 책을 보던 나도 방에서 나왔다.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잠에서 깬 채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으려 하자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셨다. 그 전화는 아버지가 근무하는 부대의 상관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가족은 민통선 근처 강원도 산골마을에 살았다. 아버지는 그 마을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상사로 복무하고 계셨다. 새벽 2시에 전화한 그 상급자는 아버지와 같은 부대의 직속상관인 주임원사였다.

아버지가 부대에서 맡은 업무는 군부대 물자를 수송하고 관리하는 수송관이었다. 수송관은 그 위치의 특성상 부대물자에 손을 대기가 쉬웠다. 분실이나 폐기처리를 하면 간단히 원하는 물자를 빼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송관을 맡고부터는 부대 내에 그런 일이 없어졌으며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물품이 정확히 병사들 각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전화를 한 아버지 상관의 별명은 진드기였다. 부대물자를 들키지 않고 진득하게 잘 빨아먹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다. 군 차량용 기름을 자기 차에 넣는다거나, 사병들에게 지급된 부식비를 술값으로 탕진하는 것은 진드기에게겐 코풀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런 진드기에게 그동안 잘 빨아먹던 꿀단지를 건들지 못하게 만든 아버지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 군부대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보다, 윗사람에게 아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군인들의 승진은 시험점수보다 상관이 주는 평가점수가 더 큰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승진할 시기가 되면 상관에게 뇌물을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승진시기가 되자 진드기는 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부대 창고에 보관된 군대 물품을 달라고 했고, 그 대가로 평가점수를 좋게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날 때부터 군복을 입고 태어났을 것 같은 아버지에게 그런 회유가 먹힐 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진드기로부터 전화가 왔다. 긴급히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다. 다급히 부대로 복귀한 아버지가 아침에 손에 쥐고

| | | | | |
|----|------|-----|------------|----|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입선 |
|----|------|-----|------------|----|

공직부문

온 것은 이십여 만 원이 적힌 술값 영수증이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2시에 또 집으로 전화가 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그 날부터 우리 집 전화는 부대 진급심사가 끝날 때까지 매일 새벽 2시에 울어 대기 시작했다.

아부나 뇌물과 담 쌓고 오로지 부대 업무에 충실했던 아버지는 항상 남들보다 진급이 늦었다. 동기들보다 늦게 중사가 되었고, 상사로 진급할 때도 남들보다 늦었다. 진드기도 군기수로 보면 오히려 아버지보다 1년 늦은 후배였다.

아버지는 업무에 대한 능력과 애국심을 인정받아 부서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다. 하지만, 직속상관의 평가가 진급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 환경에서 국무총리상은 큰 의미가 없었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주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면 그걸로 진급은 물 건너가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냥 진드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하셨다. 이번에 승진을 하면 아버지의 계급이 진드기와 같은 원사가 되니 함부로 못할 거라고 하셨다. 매일 밤 오는 전화에 질린 나도 이번만 눈감고 진드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런 일은 아버지의 군 생활에서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말하셨다.

결국 그 해 진급심사에서 아버지는 원사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근교에 있는 타부대로 이동하라는 전출 명령서를 받으셨다. 철모르는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진드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진드기는 우리와 같은 동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머리가 절반 썸 벗겨지고 동근 안경을 낀, 정말 공짜 좋아하게 생긴 그의 낯짝을 나는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거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후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바쁜 일상에서 몇 년을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전역기념행사에 참석하라는 어머니 전화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타부대로 전출되신 아버지는 그곳에서 주임원사가 되셨고, 무사히 장기복무를 마치고 명예 전역하셨다. 부사관 출신 군인에게 33년 장기복무 후 명예 전역하는 건 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나라에서는 보답으로 명예 전역자 보국훈장을 수여했고,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문득 진드기가 생각나 그가 어찌됐는지 물었다. 그러자, 곁에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내가 대학에 진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너희 아버지가 타부대로 전출 간 얼마 후에 진드기는 새로 임명된 담당자와 짜고 병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방한복 200여벌을 외부로 팔아먹은 일이 있었어. 그런데, 방한복을 지급받지 못한 병사들이 상급부대에 이 일을 신고한 거야. 그 사건으로 상급부대에서 조사를 나왔는

| | | | | |
|----|------|-----|------------|----|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입선 |
|----|------|-----|------------|----|

\ 공직부문

데, 진드기는 타부대로 진출된 너희 아버지가 방한복을 팔아먹었다고 덮어씌웠단다.”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셨던 너희 아버지에게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지.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온 대령님이 예전에 아버지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셨던 분이셨단다. 그 대령님과 함께 근무할 때 아버지는 대령님의 추천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러나 대령님이 아버지의 결백함을 모를 리가 없었지. 거기다 사건은 아버지가 부원사의 부대를 떠나고 발생한 일이었으니 누가 봐도 이상했지.”

“결국, 아버지의 누명은 벗겨졌고, 진범은 진드기인걸로 밝혀졌지. 진드기는 그 사건으로 명예 전역을 몇 년 안 남기고, 불명예 전역을 했단다.”

살아가면서 가끔 아버지와 진드기의 일을 기억하곤 한다. 그때 만약 아버지가 진드기의 전화를 받거나 그의 요구를 들어줬더라면, 아버지는 진드기와 같은 부대에서 계속 복무했을 것이다. 그리고 진드기가 벌인 사건에 같이 연루되어 불명예전역을 하셔야했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동기들보다 많이 늦은 나이로 지원했다.



그래서 만약, 내 이력서 한편에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 표시가 없었더라면,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건,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33년간 바른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라는 걸 나는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항상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





장려상 • 일반부문



청렴한
물방울 하나가



청렴한 물방울 하나가



요마른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향긋하게 퍼지는 핸드폰 벨소리...
띠리링 띠리링.

내 손가락은 마치 흰 나비가 꽃에 살포시 내려앉듯 휴대폰 잠금화면에 다
가가 가볍게 터치한다. 풍당. 탈각.

“네 안녕하세요. 럭키중국어한자교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보세요, 거기 중국어 학원이죠?”

나는 중국어학원을 운영하며 매일 소소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끽하
고 있는 자칭 해피 바이러스 중국어 선생님이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
지고 중국어로 이야기 나눌까 늘 소중한 인연에 설레는 하루를 보낸다. 그



런데 최근 나를 고민에 빠지게 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인으로부터 중국어 수강 상담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 자신의 남편이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 온 가족이 급히 중국을 가야할 형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어를 급히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회사에서 어학수강비도 지원해준다기에 마음만 먹으면 출국 전까지 초급 중국어는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당연히 오케이였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더 생긴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기뻐다. 나는 그 날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는 기쁨에 어린아이처럼 한껏 들떠 있었다.

상담일 아침에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평소보다 더 정갈한 모습으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찾아와 얼굴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고 이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런 그녀가 갑자기 던진 말 한 마디가 나를 적잖이 당혹스럽게 했다.

“선생님, 저기...... 혹시 수업을 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해주실 있나요? 수수료 드릴게요.”

“네?……그게…….”

내 귀를 의심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되지!’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천진난만하게 생글생글 미소를 띠며 말하는 그녀를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이걸 해주어야하나 말아야하나.’

‘그냥 해줄까? 안 해주면 괜히 또 꼴스럽고, 거 참 난처하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그녀. 하지만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온전히 주어진 권한만을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취득하는 것은 엄연히 부당거래라고 생각하는 나. 진리는 단순하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면 될 것을 난 또 마음이 약해져 그녀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평소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은 웬만하면 해주지는 주의였기에 원칙을 떠나 인간적인 측면으로 매우 고민하고 있었다. 원칙이냐 편법이냐의 기로에서 마치 악마의 손이 내 마음을 혹 비집고 들어와 꺾가에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 같았고 유혹하는 것 같았다.

‘굴러들어온 복이잖아. 뭐 어때. 일도 안하고 쉽게 돈 버는 건데. 아무도 몰라. 좋은 게 좋은 거지 연주야.’



이렇게 말이다.

마음속의 이 나쁜 악마. 좋은 게 좋은 거면, 나쁜 건 나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이 악마의 제안을 거절하길 정말 잘했다. 짹짹해서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했을 지도 모르니 말이다. 자칫 나도 모르게 긍정의 신호를 보낼 뻔 했었다. 하지만 순간 번뜩 정신을 차렸다. 불현듯 무언가가 내 머릿속을 차갑게 스치고 지나갔다. 사회의 부패가 어찌면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나타나 쌓이고 쌓여 사회를 점점 병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물론 스스로에게 오명을 남기고 싶지도 않았거니와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곳으로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았다. 편법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시 넷이 되기 마련이었기에 경계해야했다.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다.

“원하시는 대로 도와 드리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행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에게 웬지 모를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양심 상 그녀의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었기에 예의를 갖춰 거절했고, 그녀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차분히 발걸음을 돌려 문 밖을 나섰다. 그리고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중국어 공부 는안중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기이하게도 그 뒤로도 몇 명이 더 찾아와 일명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부탁했다. 와서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라는 회유로 부탁인 듯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 ‘그대는 그렇게 돈을 버시는 게 좋으신가요?’라고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기엔 지나치게 예의 없지 않나. 매번 바른 소리라는 이유로 다 큰 어른을 혼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때마다 정중히 거절해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자본력이 막강한 대기업이라지만 회사의 공금을 야금야금 빼먹는 게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그리 돈을 번들 무슨 의미가 있다. 범 죄나 매한가지 아닐까.

우리 의식 속에 은연중에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주의가 스며들어있나 생각해본다. 이런 병폐가 깊어지면 2014년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세월호 참사처럼 언젠가 온 국민이 또 다시 깊은 슬픔에 잠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와 내가 속한 이 사회를 위해 각자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사회악이라는 것은 어찌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치 채지 못하게 매우 평범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련다.

나처럼 일개 시민도 소위 “win-win”이라는 청탁을 받으면 난처할진대 거액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부기관 관계자나 공무원의 경우는 오죽할까 싶다. 어차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탁을 받은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매우 민망하다.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본질적으로 닮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 위를 살펴보자. CCTV를 피해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자, 단속을 피해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자, 압체처럼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한 추월을 하는 자들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양심의 흔적은 흔히 보인다. 그냥 못 본 체하거나 눈 감아 주고 동조하고는 있지 않은지 기억을 떠올려보게 된다. 멀리보지 않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조용히 들여다보면 나 또한 달콤한 현실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사회악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성찰해본다.

어찌하였건 양심의 가책을 속여가면서까지 공돈을 벌지 않은 나에게 스스로를 토닥여본다. 처음이 어렵지 두어 차례 거절을 하고나니 스스로 신념이 확고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제 아무리 도깨비 할아버지가 나와 봐라. 이 마음 변치 않으리라 씩씩하게 다짐해본다.

3년 전 처음 중국어 학습공간의 문을 열며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운영해나가자는 마음이었다. 더불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시작한 일이니만큼 초심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자는 것이 행정운영의 주된 모토이다.

주 수입원인 수강료의 100%를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하여 국세청에 투명하게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어느 수강생은 영수증 발행하지 않아

도 된다며 쿨하게 손을 휘휘 내젓는다. 나는 초심의 신념을 떠올리며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말한다.

“저희는 의무적으로 100% 신고하고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받아주세요”

라고.

물론 나도 편법으로 소득을 일부 누락하면 세금을 덜 낼 것이다. 당사자들만 침묵한다면 알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런들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이며, 옷 한 벌 밥 한 그릇 더 먹는 것이 내 양심만할까. 차라리 그 값으로 내 양심과 국가에 대한 의무감을 지키겠다고 마음먹는다.

내가 평소 기분전환 겸 산책하는 호수 공원, 내가 아프면 찾아가는 병원, 나의 생각아지트인 집 근처 공공도서관처럼 여기저기 나 혼자 힘으로는 사유할 수 없는 공공재에 내가 낸 세금이 뜻있게 사용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가슴 한편이 괜스레 뿌듯하고 기꺼이 세금을 더 내고 싶어지기까지 한다.

여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감한 깨달음 중의 하나는 바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 위에 더 나아가 가족, 옆 집, 친구들과도 더불어 잘 살아야 진정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일 불의와 타협하면 내 가족의 도덕성과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그 만큼 후퇴한다. 결국 제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며 이는 언젠가 다시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지도 모를 것이다.

누군가는 나의 양심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년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의 촛불을 생각하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우리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 했다. 촛불 집회에 나가기 전에는 나 하나 참여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곤 했었다. 그러나 한 순간 다 같이 외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구호는 한 숨 한 숨 모여 저 멀리 인왕산에 메아리쳐 다시 내 가슴에 부딪혀 울리었다. 그리고 끝끝내 촛불혁명을 이루어내었다.

이렇게 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 두 개가 되고 또 세 개가 되어 맑은 강물을 이루고 이 맑은 강물이 또 다시 모여 푸르른 바다를 이루듯, 나의 힘은 비록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한 방울일 지라도 그것이 1급수처럼 투명한 정신과 동백꽃처럼 향기로운 양심을 머금은 것이라면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해도 어딘가에서 분명 긍정의 나비효과를 일으키리라 믿는다.

이 땅에 이런 마음을 가진 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라는 더욱 맑고 깨끗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는 후손들에게 떳떳한 조상이 될 것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이 마음 변치말자.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신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일반부문

수강생에게 적극적으로 말한다.

“저희는 현금 영수증을 100% 의무 발행합니다.”

라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투명하고 더 향기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



장려상 • 일반부문



어느 택시기사의 불면증



어느 택시기사의 불면증



“어릴 적 동창 중에 김영란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6년 내내 반장, 회장을 했을 정도로 똑똑했죠. 조용조용한데 강단 있는 성격 있잖아요. 개가 그랬어요. 근데 참 희한하지. 그 이름 가진 사람들 다 똑똑한가 봐요.”

작년 연말, 나는 오후 촬영에 쓰일 소품을 집에 놓고 오는 바람에 점심시간을 틈타 직장이 있는 충무로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 집으로 향했다. 택시기사는 혼자서 만담을 하듯 반말, 존댓말을 섞어가며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모 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10년 전 퇴직하고 택시운전을 시작했다는 그는 승객과 대화하는 것이 취미인 듯했다.

“김영란법이 중심지 바닥을 바꿔놓았다니까. 왜 종로 같은 데 말이예요.”



종로 바닥을 바꿔놓다니! ‘김영란법’이 전설의 주먹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변죽을 울리는지 눈치 채지 못했다.

“접대 받던 사람이나 하는 사람 다 사라지고 연말 종로 밤거리가 조용해졌어요. 안 그래도 새벽까지 운전하는 게 힘에 부쳤는데 잘 됐지 뭐. 핑계 김에 심야 운전을 예전만치 안 해요.”

생각해보니 얼마 전부터 종로의 밤 풍경이 달라지기는 했다. 그 무렵 어느 때 같으면 종로 거리는 송년회 등 각종 연말 행사를 치르고 나온 취객들로 넘쳐났다. 그런데 2016년 연말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직장인들도, 거리 한편에서 더부룩한 속을 달래는 젊은 대학생들의 모습도 전에 비해 많이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기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공공기관, 기업의 홍보간행물을 대행 제작하는 기획사에 다녔던 나는 취재와 촬영, 편집과 교정·교열이 주요 업무였다. 그리고 연말에는 대부분의 홍보 기획사들이 그러하듯 간행물 제작과 함께 재계약을 매끄럽게 성사시키기 위한 발주사 접대를 제법 했다. 저녁까지 교정·교열을 보고 고객을 만나 식사 대접에 술 한 잔 하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 있었다. 그야말로 별 보며 출근해 별 보고 퇴근해야 하는 ‘새벽별 보기 운동’이었다.

그런데 2016년은 달랐다. 야근은커녕 정시에 퇴근하는 일이 많았다. 집에 일찍 가면 식탁 위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이제 갓 지은 잠곡밥이 올라왔고 엄마와 나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다정하게 식사를 했다. 설거지를 마치고는 반려견 푸코와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거닐었다. 기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 모든 변화가 청탁금지법이 내게 가져다준 작은 선물이었음을 득도하듯 깨달았다.

“손님들 술 먹고 토한 거 안 치워도 되니까 살겠어요.”

취객들의 뒤치다꺼리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이 후련해 보였다. 사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그는 주말, 심야 손님이 줄면서 택시 경기가 나빠질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생활패턴이 조금 바뀌었을 뿐 수입에 별 차이는 없었다. 예전에는 낮에 자고 밤에 일했다면 이제는 주말을 빼고는 평일 대부분을 낮에 일하게 되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약간 남들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낮에 손님이 꽤 있어서 심야 운전 횟수를 줄인 것에 후회는 없다고 했다.

나의 경우도 그와 비슷했다. 그 무렵 홍보기획사들은 청탁금지법이 가져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보 발행을 담당하는 직원과 발행인, 즉 기업의 회장도 법의 주요 적용대상인 언론인에 속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보 때문에 경영활동을 편하게 못 할 바에야 폐간을 선택할 것이라 걱정했다.



“요즘 사보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주변에서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폐간된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사실 출판사, 기획사, 잡지사 할 것 없이 수년 전부터 불황이었어요. 이제 온라인 매체가 대세여서 그렇죠.”

어쩌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수많은 걱정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은,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들의 핑계였을지 몰랐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기사와 나의 삶이 알게 모르게 연결돼 있음을 느꼈다. 운동회 릴레이 주자들처럼 서로 다른 삶들이 바통을 주고받으며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었다. 물론 누군가가 건네준 바통이 향기 가득한 꽃일지, 손에 쥐는 순간 아프게 찢리는 가시덩굴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잠깐 침묵이 흐르자 그가 불쑥 지금과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심야 운전하면서 불면증이 생겼어요. 새벽까지 술꾼들 상대하면 많이 지치거든요. 이상한 건 피곤한데 집에 가면 잠은 또 안 와. 그러니 두통에, 불면증에 골골댔지. 아무 잘못 없는 마누라한테 짜증내는 게 일이었고.”

그는 요즘 가족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에는 야식으로 치킨이나 족발을 사가 아내와 둘이서 맥주 한 잔 곁들여 먹는데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고 했다. 그는 아내에게 전에 없이 곰살

맞게 군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은 마누라랑 맥주 한 잔 하고서 금세 푹아떨어지니까, 약 먹어도 끄떡없던 병이 이렇게 쉽게 나아질 수 있구나, 놀라고 있어요. 김영란법이 웬만한 병원보다 나아요.”

그때까지 나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언론인, 사학인 등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면만 본 것이었다. 청탁금지법은 어느새 우리 사회를, 더 나아가 나의 일상과 문화를 바꾸고 있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온 김영란 씨에 대해 이야기하듯 청탁금지법에 얽힌 다양한 일화들을 주고받았다.

얼마 전 내가 다니는 기획사로 모 공기업 사보 담당 직원이 최종 교정을 보러왔다. 나는 회의실에서 교정을 보는 그에게 간식으로 샌드위치를 주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먹기가 좀……. 다른 분 드리세요.”

“겨우 삼천 원짜리예요. 드셔도 별 문제 없어요.”

샌드위치를 다시 가지고 나오기가 어색해 탁자 위에 슬며시 두고 나왔다.



두고 가면 알아서 먹으려니 했다. 하지만 회의실을 정리하러 들어갔을 때 손도 대지 않은 샌드위치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기획사에서 일하며 식사나 커피 대접이 일상이었던 나로서는 처음 느끼는 문화적 충격이었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서 기사가 말했다.

“많이 당황했겠어요. 허허.”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구나, 감탄하게 돼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택시기사가 잠 못 들고, 그가 태운 승객들도 고통 받는 세상이었다. 잘못된 관습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 여기며 청탁금지법이 가져오는 변화를 꺾고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사의 불면증에 차도가 있고 그와 나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주어진 것처럼 변화는 느리더라도 점차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택시가 의정부에 다다를 때쯤 얼마 전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동생이 결혼하면서 나는 엄마의 유일한 동거인으로 남았다. 하지만 직장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집에 붙어있지 못했다. 엄마는 혼자서 밥을 먹기 싫다며 식사를 거르기 일수였다. 나는 그런 엄마에게 어린애냐고 지청구를 해댔다. 물론 그러고 나면

마음은 늘 편치 못했다. 모처럼 함께 저녁을 먹던 그날은 오랜만에 엄마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저런 농담을 섞어가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딸내미랑 저녁 먹으니까 좋네. 너 없으면 오늘 저녁도 걸렸을 텐데.”

나는 밥 한 공기를 똑딱 비우는 엄마의 모습에 행복했다.

집 앞에 도착한 나는 택시에서 내리며 그의 행복한 일상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기원했다.

“오늘도 아내 분과 맛있는 야식 드세요.”

택시가 떠난 뒤 청탁금지법에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우리 사회에 기분 좋은 향기를 전해주는 ‘온 국민 행복법’이라고.

문득 택시기사의 동창인 김영란 씨가 진짜 김영란 위원장은 아닐까 엉뚱한 생각에 나는 택시가 떠난 자리에 잠시 서있었다. ♡



장려상 • 일반부문



참 좋은 나라는
청렴으로부터



참 좋은 나라는 청렴으로부터



좀체 올 기척이 안보여 조바심 내며 기다리던 봄이 코앞으로 다가 온 작년 2월 말이었다. 아이들은 봄방학을 했고 다음 학년 누구와 같은 반이 되었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던 그때, 나도 마음이 바빠져 미뤄왔던 일을 하려고 하루 휴가를 받았다.

“늦겠다. 빨리 옷 입어.”

둘째딸이 목이 부어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도통 낫지를 않고 부쩍 기운도 없으며 밥도 잘 먹지 못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좀 더 큰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봐야지 생각했지만 좀처럼 틈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 미루고 있었는데 아이들 새 학기가 시작되려니 나도 마음이 바빠졌다. 그렇게 종합병원에서 피 검사를 위해 채혈을 하고 미리 예약해둔 초음파실에서 목을 본 다음 진료를 받기 위해 이비인후과에 올라갔다.

“하아. 저기 지금 바로 소아과로 가보세요. 바로 진료 볼 수 있도록 연



‘락해 놓을 테니 지금 바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소아과로, 그리고 혈액 암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으로 가 보라고 했다. 정신없이 발길을 옮기며,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없다고 마음을 다독이며 대학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에 접수를 하고 다시 피검사를 했다. 하지만 수치가 좋지 않아 바로 수혈이 시작되었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다음날 골수검사가 이어졌고 작은 딸은 백혈병진단을 받았다. 상세 불명의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이란 병명이 나오고, 바로 이어 급하게 항암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아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우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나을 수 있다. 우리 딸은 나를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딸아이 항암에 집중했다. 작은 딸 머리가 다 빠지고 토를 하고,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에 참으로 암담했지만 그 와중에도 희망은 싹텄다. 백혈병 중에서도 완치율이 높은 림프성백혈병, 그것도 표준위험군에 속해 90%에 달하는 완치율에 희망이 생겼고 항암 첫 번째 관문인 관해에 성공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한숨 돌릴 여유도 생겼다. 무지했던 병에 대해 이

| | | | | |
|----|------|-----|------------|----|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입선 |
|----|------|-----|------------|----|

\ 일반부문

런 저런 정보를 찾아보니 우리나라는 다른 의료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 의술과 치료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의료선진국에 살고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희망도 커져갈 무렵 옆 침대 보호자가 나에게 물었다.

“서정이 엄마 직장 다녔다면서요? 실업급여 신청했어요?”

“실업급여신청이 되나요? 자발적인 퇴사인데요?”

“실업급여 해당돼요. 아이 병간호 때문에 퇴사한 거라 당장은 안 되고 입원 끝나고 통원치료 할 때 교수님한테 의뢰서 써달라고 해서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걱정이었다. 무작정 퇴사를 하고 아이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지냈는데, 아이가 셋, 내가 벌지 않으면 아파트 대출금에 세 아이 학원도 보내기 힘들었다. 더구나 백혈병은 치료비가 많이 들기로 소문난 병이었다. 보험도 지인들 부탁에 여러 개 들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다 해약하고 보장성이 작은 보험 하나만 남아있었다. 후회됐지만 지나간 일이다. 그런 와중에 실업급여가 나오면 당분간은 큰 걱정 없이 아이 암 투병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덧 아이의 힘들어 하는 모습에 더디기만 했던 병원생활도 기어이 지나고 퇴원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슬슬 병원비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무과에서 중간진료비 정산을 부탁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병원비가 적게 나왔다. 암 환자는 산정특례혜택으로 입원진료의 5%만 내면 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 주기도하고 또 여러 재단에서는 병간호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생활비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아이가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정말 좋은 나라였다. 병원사람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제가 살면서 우리나라 좋은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어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구나 하구요. 아프지 않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의료 혜택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솔직히 병원도 복지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 살았으면 이렇게 치료한번 못해보고 아이 잃을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에 살아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세금 많이 내고 나한테는 혜택도 없는 것 같고 국회 앞에서 데모하는 사건 날 때마다 뭐 이런 나라가 있어 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저도 큰일 당하고 보니 이 나라에 살아서 다행이지 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모두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 칭찬했다.

작은 딸은 다행히 관해와 공고요법이란 2 달간의 항암치료를 무사히 끝내고 당분간 통원치료 결정이 났다. 그리고 나는 담당교수님께 통원치료가 능하다는 의뢰서를 받아서 얼마 뒤 고용보험센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다.

“회사에서 대체인력이 없어 퇴사한 거 맞으시죠?”

“네.”

얼떨결에 대답했지만 그건 알아보지도 못했다. 우선 아이가 큰 병에 걸렸고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 사직서 쓰고 아이 항암에 매달렸다. 하지만 거짓말도 아니었다. 작은 회사에 대체인력이 당장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회사에 얘기를 하면 서류는 바로 작성해 줄 것이다. 하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당분간 아이가 완치될 때까지 아이 곁에 있을 생각이었고 더구나 아이를 돌봐줄 다른 사람도 없었다. 그저 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왔다가 ‘잘 알아보고 오는 건데……. 헛걸음 했다.’하고 뒤돌아 나왔다. 그리고 얼마 후였다. 외래에서 고용보험 이야기를 해줬던 보호자를 다시 만났다.

“실업급여 신청했어요?”



“아니요, 제가 아직 다시 회사 다닐 마음도 없고 애들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신청을 못했어요.”

“아이고 그냥 돌봐줄 사람 친척 중에 한 사람 넣고 구직활동만 하고 취업 안하면 되지요. 몇 달간 그렇게 실업급여 받으면 금방 끝나는데.”

“그렇긴 한데, 좀 그래서요.”

“참 서정엄마도 순진하네.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뭘.”

그 얘기를 듣고 잠깐 망설였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계산해 보니 눈 질끈 감으면 몇 백이란 큰돈이 생기는 것이었다. 더구나 큰 병으로 입원생활을 하다 보니 나라와 재단에서 주는 혜택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편법도 알려주었다. 개인 사업이나 작은 회사에 다니면 남편 소득을 속인다거나 몇 개월간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거나 하면 된다는 것을 말이다. 나도 솔직히 말하면 아이 셋에 남편 혼자 외벌이가 되었고 아이도 많이 아프다 보니 돈 걱정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겼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픈데 그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나 자신도 속이고 싶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순진하다 얘기하고 남들은 아

무렇지도 않게 다 하는데 내가 바보처럼 사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이번 실업급여는 나도 눈 한번 질끈 감고 받아야겠다.’하는 생각으로 집으로 가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우리 작은 딸 어때?”

“오늘 수치도 좋고 별 이상 없어.”

“잘됐다.”

“근데 나 저번에 얘기한 실업급여 받아보려고”

“못 받는다면 어떻게?”

“여기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냥 돌봐줄 사람 친척 한 사람 쓰고 구직활동하면서 취업은 안하면 된대 다 그렇게 한다고 말이야.”

“하지 마! 나는 회사에서 볼펜 한 자루 갖고 와도 불편한데 당신도 마 찬가지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짓말 하고 불안하고 힘들어. 그리고 당신이 불안하면 애들도 덩달아 불안해져.”

“그래도 다들 받는다는데……. 내가 순진하대.”



“그런 사람은 그러다 언젠가는 벌 받는다 생각해. 우리 조금만 아끼고 살면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고 남들이 그러다고 너도 나도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도 영향이 있지. 세금 왕창 늘어나고 애도 아픈데 나쁜 짓 하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마음 편히 살자.”

“그러게 나는 괜히 손해 보는 느낌이었는데 당신 말 들으니까 그렇다. 우리 딸 위해서라도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벌 받을라.”

생각해 보니 바로 얼마 전까지 산정특례혜택을 받으면서 복지국가에 살고 있는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그새 마음이 간사해진 내 마음이 부끄럽고 반성이 되었다. 나도 결혼하고 16년을 살면서 내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다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을 당했을 때 대한민국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청렴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